

## ‘최치원’의 전승과 광주 지산재 : 이지역성 탐색을 위한 시론

김 경 호\*

- I. 들어가며
- II. 최치원과 경주최씨
- III. 문묘배향의 첫 번째 인물, 최치원
- IV. 최치원의 문묘종사, 또 다른 이유
- V. 가문의 지속적인 영광의 찬상, 지산재
- VI.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이 글은 영남 출신의 고운 최치원이 어떤 방식으로 호남에서 호명되어, 호남의 지역적 특이성을 구성하는데 활용되었는지를 광주 소재의 지산재 건립 과정과 연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최치원이라는 전통’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생산되어 ‘지금-여기’에 이르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호남의 지역성’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실증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지역의 특이성을 산출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시론적인 성격을 갖는다.

---

\* 전남대학교 호남학과 교수 / manas2009@jnu.ac.kr

‘최치원이라는 전통’이 상존하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첫째는 ‘최치원이라는 전통’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점이고, 둘째는 그러한 전통이 특정한 지역과 지역민에게 전유됨으로써 어떠한 유형의 지역적 특이성을 구성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나는 이러한 측면을 서로 다른 정체를 갖는 특이성들이 만나고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보았고, 이것을 ‘異地域性’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최치원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전통이 비록 통치적 차원에서 선형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지역에서 지역민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전승되어 재구성되는 측면 또한 공존한다. 지산재를 통해 ‘최치원이라는 전통’이 전승되고 재연되는 과정은 결국 다공적인 호남의 지역성을 구성하는 과정과 중첩되어 있다. 이것은 어쩌면 광주에 스며든 최치원을 만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 주제어

고운 최치원, 경주최씨, 지산재, 광주, 최영한, 이지역성, 문묘종사

## I. 들어가며

이 글은 신라 하대의 학술사상계를 대표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孤雲 崔致遠(857-?)이 어떻게 호남의 광주에 착근되었는지를 芝山齋의 건립 과정과 연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나는 영남 출신의 慶州人 최치원을 통해 ‘최치원이라는 전통’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호남의 광주에서 호명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생산되어 ‘지금-여기’에 이르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sup>1)</sup>

지산재는 광주·호남지역에서 武城書院과 함께 최치원을 배향하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영남 출신 인물이 호남에서 배향되기도 했지만,<sup>2)</sup> 신라 하대의 영남인을 배향하는 사례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sup>3)</sup> 무성서원의 경우, 최치원(태산 태수)을 추모하는 공간이었던 태인(정읍)의 泰山祠를

- 
- 1) 전남대 호남학연구원과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은 지난 2019년 7월에 진행된 공동워크숍을 통해 “영호남, 공존의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논의한 바 있었다. 이때 제안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진척되지 못한 논제 가운데는 “지역성(Locality) 생산의 계보”에 대한 탐구와 “전통의 호명과 재현”의 문제, “경계의 안과 밖, 접경”에 대한 탐구와 같은 것이 있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논문은 이런 생산적인 토론의 연장에서 촉발되어 “異地域性의 탐색”이라는 연속연구 주제로 수행된 것이다.
  - 2) 나주목사로 부임했던 김성일은 1584년에 大谷書院을 건립하고, 후임목사 임윤신은 1587년 사우를 건립하여 경기인 조광조와 영남인 김굉필, 정여창, 이언적, 이황 등 오인을 배향하였다. 이 서원은 후에 경현서원으로 바뀐다. 김문택,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 나주 경현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11권, 한국국학진흥원, 2007.
  - 3) 익명의 심사자는 최치원과 관련한 논의에서 ‘영남’과 ‘호남’이란 용어 사용 문제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영남’과 ‘호남’이란 낱말은 고려 시대 이후에 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등장했던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행정 단위에 덧붙여 조선시대에 지역적 특이성이 의식되면서 통용되기 시작했던 ‘별칭’을 말한다. 이러한 별칭은 이미 완결되거나 고정된 ‘지역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현재(현대)에도 여전히 ‘구성되는 중’이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 ‘영남’과 ‘호남’이란 어휘는 ‘고착된 지역성’의 표지가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횡단하여 지역적 특이성을 구성하는 ‘유동하는 질성’을 포착하려는 낱말이다. 이런 점에서 ‘최치원’도 ‘유동’하는 ‘구성된 최치원’이다.

모태로 하였다. 이곳의 향촌 유림들이 태인 현감을 지냈던 靈川子 申潛(1491-1554)<sup>4)</sup>을 함께 배향하면서 1615년(광해군 7)에 泰山書院으로 확장했다. 이것이 1696년(숙종 22)에는 무성서원으로 사액<sup>5)</sup>되었다.<sup>6)</sup>

무성서원에 앞서 최치원을 배향한 첫 번째 서원은 경주의 西嶽書院으로 알려져 있다. 경주부윤이었던 龜巖 李楨(1512-1571)은 1561년(명종 16), 退溪 李滉의 자문을 받아 지역 유림들과 함께 仙桃山 아래에 金庾信의 위패를 모신 서악정사를 건립하였다.<sup>7)</sup> 이후 1563년(명종 18)에는 이황이 친필로 쓴 ‘서악정사’ 현판을 받았고, 1623년(인조 1)에는 향현들의 건의와 경주부윤 呂祐吉의 상소로 서악서원으로 사액되었다.<sup>8)</sup>

이 시기에 지역 유림들의 건의와 경주최씨 문중의 후원으로 弘儒侯 薛聰과 문창후 최치원의 위패도 합사하게 된다. 당시 사회적 실험의 성격을 띠었던 서원 건립 운동을 주도했던 그룹이 이황과 그 문하의 제자들이었다.<sup>9)</sup> 이들은 서원 건립을 통해 성리학의 학술과 교육 이념을 일상화 하고자 하였다.

최치원을 배향한 무성서원이 유교적 학술진흥과 향촌 교화를 위한 ‘공적 공간’의 성격을 띠는다면, 광주 지산재는 상대적으로 가문과 관련된 ‘사적 공간’의 성격을 띤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고

4) 신잠은 신숙주의 증손자로 본관이 高靈이고 자는 元亮이며, 호는 靈川子 혹은 峨嵋山人이다. 시서화에 능하여 三絶로 불렸다. 安謫, 『己卯錄補遺』 追錄(『大東野乘』), 「申潛傳」,

5) 임선빈, 「17세기 무성서원의 건립과 운영-제향인물과 사액과정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35집, 한국국학진흥원, 2018.

6)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위치한 무성서원 태산사에는 최치원, 신잠을 비롯하여 지역의 향현인 丁克仁, 宋世琳, 鄭彥忠, 金若默, 金灌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武城書院誌』 上, 「泰山祠事續」; 「院誌」. 『肅宗實錄』 卷30, 肅宗 22年 1月 1日.

7) 李滉, 『退溪集』 續集 卷4, 「答李剛而」. “前示罷祀甚善. 精舍則仍存不妨. 人言亦不可盡恤也. 但仙桃之名. 太似訛異. 若精舍在西岳之下. 只稱西岳精舍如何.”

8) 鄭克後, 『西岳誌』, 「書院創始」.

9) 이황과 그 문인들의 서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수건, 「구암 지정의 가계와 생애 및 ‘退南’과의 관계」, 『안동사학』 제9-10집, 안동사학회, 2005; 권시용, 「16-17세기 초반 퇴계문인의 서원 건립 활동」, 『한국서원학보』 제8호, 한국서원학회, 2019.

있는 경주최씨 영당<sup>10)</sup>이 지산재다. 역사적 존재로서 그리고 경주최씨의 시조로서 최치원은 지산재를 근거지로 하여 광주에 뿌리를 내렸다.

최치원과 지산재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논문은 두 가지 주요한 논의를 갖는다. 첫째, 한국사회의 사상문화 전통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문창후 고운 최치원의 고려시대 文廟從祀와 관련한 문제다. 문묘종사는 매우 민감한 학술적 문제이자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논제이며, 더욱이 경주최씨 가문의 위상과 연결되는 주제다. 최치원의 문묘 배향이 결정된 고려 현종대 뿐만 아니라 이후 조선시대에도 지속된 관련 논의를 통해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후대인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호남의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주최씨 일족들의 최치원에 대한 추존 의식과 관련한 문제다. 경주최씨 시조인 최치원에 대한 추송 사업은 조선후기에 광주 대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芝山影堂의 건립으로 이어졌고, 훼손된 이후 복원되어 지산재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경주최씨의 광주지역 착근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가문’ ‘혈족’ 의식의 형성을 ‘이지역성’의 ‘지역적 착근’이라는 시각에서 살필 수 있다.

이와 같은 나의 입장은 최치원을 실존했던 역사적 존재에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사유의 지점에 투입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것은 최치원을 매개로 하여 구성되고 접속하는 ‘내부와 외부’, ‘포섭과 배제’의 힘을 상상하면서, 그러한 힘들이 교차되는 지점을 하나의 ‘장소(place)’이자 ‘경계(border)’로 설정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다층적인 관계 속에서 상관적이고 문맥적으로 지역성(Locality)은 구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지역성은 새로운 힘들(학술, 정치, 경제, 문화)과의 경쟁을 통해 변형되거나 지속된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트랜스로컬의 분권시대에 ‘이지역성’을 담보했던 경계적 존재로서 최치원을 탐사하려는 것이다.<sup>11)</sup>

10) 장일규, 「최치원 관련 유적의 분포와 승모」 『한국사학보』 63호, 고려사학회, 2016.

11)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에서는 2019년 11월 22일, ‘고운학의 재발견-로컬에서 본

결국 이러한 시도는 광주지역의 사회적 관계망과 삶의 과정에서 최치원을 재발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찌 보면 광주에 스며든 최치원을 만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 II. 최치원과 경주최씨

경주최씨를 대표하는 고대사의 인물이었던 최치원은 한국사상사의 맥락에서는 그 평가가 엇갈린다. 최치원은 儒家일까? 아니면 佛家일까? 그도 아니면 仙家일까? 그도 저도 아니면 세 가지 모두일까? 이 물음은 최치원의 '정체'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이 물음에 명쾌하게 답하기가 쉽지 않다. 유가의 입장에서 보면 최치원은 유학자적 관료였고 한문학의 대가였다. 불가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에 친연성을 갖고 있는 불교사상에 해박한 불교도였으며, 선가의 입장에서 보면 신선사상에 부합하는 논의와 행위를 보여주었다.

이런 경계의 애매성으로 인하여 역사적 존재로서 최치원은 한국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호출되었고, 때론 논란이 되기도 했다.<sup>12)</sup> 그러나 한편에서는 최치원을 “한국 철학사사상사의 서장을 장식하는 중요한 사상가의 한 사람이자, 우리나라 고유사상의 정체를 밝히는데 있어 열쇠를 쥔 인물”<sup>13)</sup>로 평가하기도 한다. 거시적인 한국사상사의 견지에서 본다면, 최치원은 한국의 고대사를 여는 인물이자 고대적 사유를 고려와 조선시기를 거쳐 현대로 이어주는 교량적인 인물이라고 평가

---

최치원'이란 주제로 고운학 한중인문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 학술포럼에서는 호남지역에 산재한 최치원 선생의 사적을 중심으로 호남학(지역학)의 관점에서 최치원에 대한 학술적 재조명을 시도했다. 논자는 포럼에서 “최치원의 한국사상적 위상과 지산재”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12) 한국사상을 근대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첫 번째 세대에 속하는 신채호는 최치원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제기하면서, 최치원을 모화주의자로 평가했다. 申采浩, 『朝鮮上古史』, 『丹齋申采浩全集』(上), 丹齋申采浩先生紀念社業會, 형설출판사, 1979.

13) 최영성, 『최치원의 철학사상』, 아세아문화사, 2002.

할 수 있다.

경주최씨 문중의 분파를 대표하는 중앙종친회는 자신들의 씨족이 “우리나라 최씨 가운데 大宗으로 신라 沙梁部 촌장 蘇伐都利를 원조로 하고 그의 24세손이며 신라 말기의 대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을 시조로 하여 본관을 경주로 삼아 世系를 이어오고 있는데, 다른 최씨들도 최치원 선생의 선대 및 후대에서 분파 되었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sup>14)</sup> 세대 계열이 불확실한 고대의 인물을 씨족의 기원으로 소급하면서 역사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을 시조로 삼는 것은 경주최씨 문중만은 아니다.

어쨌든 경주최씨는 최치원이라는 명실상부한 역사적 실존 인물을 시조로 삼음으로써 씨족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했다. 고려시대에 최치원은 문묘에 배향되었고, 그 후예들은 문신 관료나 무신으로 등용되면서 경주최씨 일족은 최고의 번영을 누리며 번성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떠했을까? 조선시대에 경주최씨 일문은 사실 학계나 중앙 관계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고려시대에 비한다면 매우 한미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문과 급제자가 매우 적었다. 이러한 점은 경주최씨 일문이 조선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과거급제가 조선시대에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신분의 유지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향촌사회를 주도했던 지방의 사족들에게는 그들의 지역적 위상을 결정짓게 하였던 生員進士의 입격 여부가 중요하였다. 유학적 소양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던 司馬試 小科 입격자는 문과·무과 등 과거급제의 위상만큼이나 중요했다.

과거 급제자나 사마시 입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집안은 지역사회나 鄉黨에서 행세할 수 없었다. 그러한 요소들은 향촌에서의 가문의 위상을

---

14) <http://www.choichiwon.net/>

결정하는 근거였다. 이와 같은 흐름을 근간으로 유지되었던 것이 조선사회였다. 경주최씨 일문에서 문과급제자가 적었다는 것과 벼슬에 나간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범상하게 볼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은 경주최씨 일족들이 지역에서 타 씨족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조건이었음에 틀림없다.

실제로 경주최씨 일족 가운데 조선시대에 학술로 추앙받거나 유력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던 인물은 없었다. 그렇다고 문무과 급제자나 사마시의 합격자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다. 경주최씨는 문과 급제자 상위 60개 성관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sup>15)</sup> 이런 데이터는 무과나 사마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성씨별 문과 급제자의 숫자가 조선시대 경주최씨의 위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술적 평판이나 정치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한다.

그러나 경주최씨의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는 비장의 존재가 있었다. 비록 문과급제자와 같은 학자적 관료를 다수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경주최씨 일족에게는 경주최씨의 비조 최치원이 있었다. 최치원은 고려 시대에 결정된 것이긴 해도 유교를 표방했던 조선에서 ‘여전히’ 문묘배향자였다. 문묘배향이라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적 학술과 행의에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을 추존하는 것이다.

조선사회에서 최치원의 학술이 비유교적이라는 평가<sup>16)</sup>가 제기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최치원은 삼교회통적인 입장을 표방하면서도 유교적 학술 진작에 공헌하였고 타의 귀감이 되어 고려시대에 이미 문묘종사되었다. 그것이 중요했다.

15) 조선시대 성관별 문과 급제자 순위(상위 60개 성관)를 분석한 백창력의 연구에 따르면, “경주최씨”는 문과급제자 상위 60개 성관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은 “경주최씨”의 일원들이 조선사회에서 공적인 출사의 통로가 매우 제한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백창력, 『조선후기 양반지배네트워크의 성격과 구조변동-상충양반의 친족연결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16) 이광우, 「최치원 평가를 둘러싼 조선시기 유학자의 몇 가지 고민」, 『한국학논집』 73호, 2018.



### Ⅲ. 문묘배향의 첫 번째 인물, 최치원

최치원은 유불선(도) 어느 한 사유에 묶이지 않고 경계를 넘나들었던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문묘에 종사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를 儒子로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한국유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최치원은 1020년(현종11) 8월, 문묘에 최초로 배향되었다.

그렇다면,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친연성이 있고 선교(도교)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최치원은, 어떻게 문묘종사 되었을까? 이규보에 따르면, 동방의 학자들이 그를 모두 “儒宗으로 여겼다<sup>17)</sup>는 평가가 있지만, 고려 시대에 신라인이 문묘에 종사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궁금증을 유발한다. 게다가 최치원의 문묘종사 2년 후인 1022년(현종 13)에는 두 번째 배향된 인물이 나오고, 그가 설총(655-?)이었다는 것도 흥미롭다.

어째서 최치원은 200여 년이나 앞선 설총을 제치고 첫 번째 문묘배향된 것일까? 현종대에 두 번에 걸쳐서 문묘종사가 진행되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최치원과 설총의 문묘종사와 관련하여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려 있다.

- ① 현종11년(1020) 8월 8일 정해  
정해. 신라의 執事省侍郎이었던 최치원을 內史令으로 추증하고, 공자의 사당에 배향하였다.<sup>18)</sup>
- ② 현종13년(1022) 1월 24일 갑오  
갑오. 신라의 翰林 설총을 弘儒侯로 추증하고 공자의 사당에 배향하였다.<sup>19)</sup>
- ③ 현종14년(1023) 2월 12일 병오  
병오. 최치원을 문창후로 추봉하였다.<sup>20)</sup>

17)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白雲小說」. “故東方學者, 皆以爲宗.”

18) 『高麗史』 卷4, 「世家」 卷4, 顯宗 11년 8월. “丁亥 追贈新羅執事省侍郎崔致遠內史令. 從祀先聖廟庭.”

19) 『高麗史』 卷4, 「世家」 卷4, 顯宗 13년 1월. “甲午 贈新羅翰林薛聰弘儒侯. 從祀先聖廟庭.”

20) 『高麗史』 卷5, 「世家」 卷5, 顯宗 14년 2월. “丙午 追封崔致遠爲文昌侯.”

통상적으로 문묘종사에 대한 건의나 상소가 있게 되면, 왕은 그 문제를 신료들과 논의하여 먼저 시호를 결정한다. 시호는 일반적으로 후손이 청하고 한번 결정되면 개정이 불가능하며, 시호가 결정되면 관직이나 품계를 추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단계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단 『고려사』의 기록 자체는 최치원이 ①1020년, 현종11년 8월 8일에 문묘에 배향되었고, 설총은 ②1022년 1월 24일에 문묘에 배향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데 최치원의 경우 석연치 않지만 ③이 추가되어 있다. ③은 어떻게 된 사연일까?

『삼국사기』, 「열전」에는 ‘최치원’편과 ‘설총’편이 연이어 실려 있다. 이 두 기록은 최치원과 설총의 전기를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문묘에 배향될 수 있었던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최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편의상 내용을 구분하였다.

- ① 최치원은 자가 고운이며, 또는 해운이라고도 하였다. 서울 沙梁部 사람이다. 기록의 전함이 없어져 그 世系를 알 수 없다. 치원은 어려서부터 정밀하고 민첩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하였다. 나이 12세가 되어 장차 바다배를 타고 당나라에 들어가 공부를 하려 할 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십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니 힘써 공부하라!” 하였다.
- ② 乾符 원년 갑오(경문왕 14년, 874)에 예부시랑 裴瓚 아래에서 한번 시험을 보아 합격하여 宣州 율수현위에 임명되었고, 그 치적의 평가에 따라 승무랑 시어사 내공봉이 되었고 자급어대를 하사받았다.
- ③ 그 무렵 黃巢가 반란을 일으키자 高駢이 제도행영병마도통이 되어 이를 토벌하였는데, 치원을 불러 종사관을 삼고 서기의 임무를 맡겼다. 그가 지은 表·狀·書·啓가 지금까지 전한다.
- ④ 나이 28세에 이르러 귀국할 뜻을 가지자 僖宗이 이를 알고 光啓 원년(885)에 조칙을 가지고 사신으로 보내었다. 신라 왕이 불들어 두려고 시독검한림학사병부시랑지서서감으로 삼았다. 치원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西學하여 얻은 바가 많아 앞으로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하였으나 왕조 말기여서 의심과 시기가 많아 용납되지 않고 太山郡 태수로 나갔다.
- ⑤ 치원은 서쪽에서 대당을 섬길 때부터 동쪽의 고국에 돌아온 후 계속하여 혼란

한 세상을 만나 발이 묶이고 걸핏하면 허물을 뒤집어쓰니,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스스로 가슴 아파하여 다시 관직에 나갈 뜻이 없었다. 방랑하면서 스스로 위로하였고, 산 아래와 강이나 바닷가에 정자를 짓고 소나무 대나무를 심었으며, 책을 베개로 삼아 읽고 시를 읊조렸다. 예컨대 경주의 남산, 剛州의 氷山, 陝州의 청량사, 지리산의 쌍계사, 合浦縣의 별장 등은 모두 그가 노닐던 곳이다.

- ⑥ 최후에 가족을 이끌고 가야산 해인사에 숨어 살면서 친형인 승려 賢俊 및 정현사 스님과 道友를 맺고 조용히 살다가 늙어 죽었다.
- ⑦ 『신당서 예문지』에는 “최치원의 『사록집』 1권과 『계원필경』 21) 20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주에는 “최치원은 고려인으로서 빈공과에 급제하여 고병의 종사관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이와 같이 중국에 알려져 있었다. 또한 문집 30권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 ⑧ 전에 우리 태조가 일어날 때 치원은 태조가 비상한 사람으로 반드시 천명을 받아 나라를 열 것을 알고서 편지를 보내 문안드렸는데, 그 글 중에 “계림은 누런 잎이고 鵲嶺은 푸른 소나무라.”는 구절이 있었다.
- ⑨ 그 문인들이 개국 초기에 와서 높은 관직에 오른 자가 한 둘이 아니었다.
- ⑩ 현종이 왕위에 계실 때 치원이 조상의 왕업을 몰래 도왔으니 그 공을 잊을 수 없다고 하여 명을 내려 내사령(內史令)을 추증하고 14년 태평(太平) 2년 임술(1022) 5월에 文昌侯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sup>22)</sup>

『삼국사기』에서 최치원 열전을 집필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편찬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이 金富軾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의 평가적 기준에는 유교적 관료의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儒佛仙 삼교<sup>23)</sup> 회통적인 사유<sup>24)</sup>가 드러나는 ④⑤ 시기의 내용은 가려져 있고, 최치원의 유교 학자적 관료로서의 업적이 부각되어 있다.

유교적 교양을 갖춘 학자적 관료였던 김부식의 입장에서 볼 때, 최치원의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다. 최치원 이외에도 당나라의 빈공과에 합격한

21) 崔致遠, 『崔文昌侯全集: 桂苑筆耕集』

22) 『三國史記』 卷46, 「列傳」六, <155 崔致遠>.

23) 최영성, 『최치원의 철학사상』,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2.

24) 김성환 「최치원 ‘國有玄妙之道’설의 재해석-‘한국 고대 신선사상의 지속과 변용’의 시각에서」, 『도교문화연구』 34호, 한국도교문화학회, 2011.

인물들이 있었지만, 황소의 난을 평정할 만한 필력을 가졌던 문사도 없었다.<sup>25)</sup>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문집으로 평가받는 최치원의 『계원필경』에는 흔히 「토황소격문」으로 알려진 글은 없고 「檄黃巢書」가 실려 있다.

김부식이 보았을 때, 신라인 최치원은 대국인 당에 가서 ②빈공과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고 ③황소에게 보내는 격문을 써서 난을 평정하는데 기여했다. 귀국해서는 ④태산태수와 같은 관리가 되어 봉직하였고, 게다가 ⑦『계원필경』과 같은 다수의 저술이 전해지며, ⑧⑨에서 보듯이 그와 그의 제자들은 고려를 개창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 그러므로 김부식은 ⑩「密贊助業」의 공로로 최치원이 문창후라는 시호를 받았고 문묘종사 된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설총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열전」에 보인다.

- ① 설총은 자가 충지이고, 조부는 담날 나마이며 부친은 원효이다. (원효는) 처음에 중이 되어 불서에 통달하였으나 얼마 후에 속인으로 되돌아와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불렀다.
- ② 설총은 성질이 총명하고 예리하며, 나면서부터 도술을 알았다. 그는 우리말로 아홉 경전을 해독하여 후배들을 훈도하였으므로, 지금까지 학자들이 그를 으뜸스승으로 삼고 있다. 그는 또한 글을 잘 지었으나 세상에 전해 온 것이 없고, 다만 지금 남쪽 지방에 총이 지은 비석의 명문이 간혹 있으나 글자가 망가져서 읽을 수 없으므로 끝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
- ③ 신문대왕이 한여름에 높고 밝은 방에 거처하면서 총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오늘은 오래 내리던 비가 처음으로 개고, 훈풍이 시원하니 비록 맛있는 음식과 애절한 음악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은 고상한 담론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울적한 마음을 푸는 것만 못하구나. 그대는 필시 색다른 이야기도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나를 위하여 이야기해 주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총이 말했다. “예. 신이 들으니 예전에 화왕이 처음 들어 왔을 때, 향기로운 꽃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였는데, 봄이 되어 곱게 피어나 온갖 꽃들을 능가하여 홀로 뛰어났습니다. 이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고 어여쁜 꽃들이 빠짐없이 달려와서 혹시 시간이 늦지나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며 배알하려고 하

25) 『桂苑筆耕』 卷11, 「檄黃巢書」. “有大愆可以擢髮. 無小善可以贖身. 不唯天下之人皆思顯戮. 抑亦地中之鬼已議陰誅. 縱饒假氣遊魂. 早合亡神奪魄.”

였습니다.… 이에 왕이 안색을 바로 하며 말하기를 “그대의 우화는 진실로 깊은 뜻이 담겨 있도다. 기록해두어 왕자의 경계로 삼기 바란다.” 하고 마침내 설총을 높은 관직에 발탁하였다.

- ④ 세상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일본국의 진인이 신라 사신 설 관관에게 준, 시의 서문에 이르기를 “일찍이 원효거사가 지은 「금강삼매론」을 본 적이 있으나, 그 사람을 보지 못했음을 심히 한스럽게 여겼는데, 듣자하니 신라국 사신 설이 바로 거사의 손자라고 하니, 비록 그의 조부는 보지 못하였으나 그의 손자를 만난 것을 기뻐하여 이에 시를 지어 그에게 준다.”라고 하였다. 그 시는 지금도 남아 있으나 그 자손의 이름은 모른다.
- ⑤ 우리 현종이 왕위에 있는 지 13년인 건흥 원년 임술에 (설총에게) 홍유후를 추증하였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설총이 일찍이 당에 들어가서 유학하였다고 하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sup>26)</sup>

설총의 자는 聰智이고, 파계한 소성거사 원효와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딸인 과부 요석공주 사이에서 출생하였다.<sup>27)</sup> 그는 유학자로 慶州薛氏의 시조가 되었다. 김부식을 비롯한 「열전」의 기록자들은 ①④에서 설총이 신라를 대표했던 승려 중의 한 사람이었던 원효의 아들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그럼에도 그가 ②유교경전에 뛰어난 유교학자였고, ③신문왕에게 “화왕계” 이야기를 전하여 발탁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업적으로 인해 설총은 ⑤고려 현종 13년(1022)에 홍유후로 추증되고 문묘에 종사되었다는 것이다.

최치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략한 「열전」의 기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래도 명확하다. 원효가 거리를 떠돌며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려나, 하늘 반칠 기둥을 찍어내려나.”<sup>28)</sup>라는 노래를 통해 얻으려 했던 이가 설총이었다. 설총은 유학의 경전을 훈고학적인 방법에 의해 우리말로 풀이한 최초의 유학자였다.<sup>29)</sup>

『삼국사기』에는 “방언으로 구경을 읽어 지금까지 학자들이 그를 宗으

26) 『三國史記』 卷46, 「列傳」6, <薛聰>.

27) 『三國遺事』 卷4, 「義解」5, <元曉不羈>.

28) 『三國遺事』 卷4, 「義解」5, <元曉不羈>. “誰許沒柯斧。我斫支天柱。”

29) 김형수, 「신라 유학과 설총의 학문」, 『새국어생활』 제11권 제3호, 국립국어원, 2001.

로 삼는다.”라고 할 정도로 설총의 경학은 당대 최고였다.<sup>30)</sup>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육경과 문학을 혼해하여, 지금까지도 海東에서 明經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전수하여 끊이지 않았다”<sup>31)</sup>고 기록하고 있다. 강수, 최치원과 함께 신라의 3대 문장가로 평가되었던 설총은 유교 경전 해석에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고려시대에까지 이어졌다. 이런 이력으로 설총은 1022년(현종 13)에 문묘에 배향되었다.

최치원과 설총의 문묘종사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배향된 설총은 최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학자’의 면모가 부각되어 있다는 점이다. 1022년에 배향된 설총에 대한 평가로 인해 1020년에 배향된 최치원의 역량과 업적이 과소평가되지는 않으나, 이러한 맥락은 미묘하지만 의문스럽다.

이것은 설총의 문묘종사 당시에 최치원의 유불선(도)에 대한 통합적 시선과는 다른, 보다 선명한 유교적 관점이 요구되었던 것은 아닐까? 최치원의 삼교회통적인 학술적 태도는 오늘날의 시선에서 볼 경우, 매우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진보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유학을 강화하려했던 고려 현종대의 시선에서는 일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신라계의 인물이었던 최치원의 문묘종사에 이어서 같은 신라계 설총을 연이어 문묘에 배향했던 것은 이러한 점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치원의 유교적이면서도 異儒敎적인 학술사상은 그래서 그의 문묘배향이 지속되었던 조선시대에 논란거리였다. 유교적인 성현들의 반열에서 최치원을 배향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조선의 유교학자들은 유교뿐만이 아니라 불가와 선가에 친연성이 있었던 그를 ‘이단’의 관점에서 보려했다.

30) 『三國史記』 卷46, 「列傳 156」 薛聰. “父元曉. 初爲桑門. 淹該佛書. 既而返本. 自號小性居士. 聰性明銳. 生知道待術.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又能屬文. 而世無傳者.”

31) 『三國遺事』 卷4, 「義解」 第5, <元曉不羈>. “訓解六經文學. 至今海東業明經者. 傳受不絕.”

#### IV. 최치원의 문묘종사, 또 다른 이유

어쨌든 최치원은 설총보다 앞서 고려 현종 11년(1020)에 문묘에 배향되었다. 유교적인 색채가 강렬하다고는 할 수 없는 최치원에 대한 문묘종사를 위해서는 다른 근거가 더 필요했을 듯하다. 『삼국사기』 「열전」의 기록을 되짚어보면, 최치원이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흥기할 것을 예견하였다’고 전해지는 ⑧“계림은 누런 잎이고 곡령은 푸른 소나무라.”라는 기록이 그러한 자료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발언의 실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다. 이것은 후대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은 최치원이 고려의 개창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인데, ⑨에서 보이는 문인 그룹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최치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려 초기에 활동했던 일군의 그룹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치원의 문인과 그 계보를 잇는 핵심 그룹은 친인척들이었다. 당나라의 빈공과에 급제했던 최치원의 사촌동생 崔彦撝(868-944), 崔承祐(?)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최언위는 왕건의 휘하로 들어가 한림원령평정사를 지냈고<sup>32)</sup> 그 자식들도 고위직에 등용되었던 반면 최승우는 왕건과 대적했던 견훤의 막후에서 활동하였다.<sup>33)</sup> 최치원, 최언위, 최승우는 흔히 ‘경주 3최 천재’라고 불렸다.

최치원의 후예로 성종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崔承老(927-989)다.<sup>34)</sup> 최승로는 최치원 일문의 증손자뻘이고, 최승로의 아버지 崔殷畲은 최치원의 손자뻘이다. 최승로는 성종을 최측근에서 보필하면서<sup>35)</sup> 시무28조를 통해 고려사회가 유교적 통치체계와 윤리 규범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sup>36)</sup>

32) 『高麗史節要』 卷2, 惠宗義恭大王, 甲辰元年[後晉 開運元年, 契丹 會同七年]. 944년 최언위 졸기.

33) 徐居正, 『東文選』 卷57, 「代甄萱寄高麗王書」(崔承祐 撰).

34) 김복순, 「최치원과 최승로」, 『경주사학』 제11집, 경주사학회, 1992.

35) 『高麗史節要』 卷2, 成宗文懿大王, 己丑八年[宋 端拱二年契丹 統和七年]. 989년 5월. 최승로 졸기.

36) 徐居正, 『東文選』 卷52, 「上時務書」(崔承老 撰).

성종대에는 최승로를 비롯한 경주최씨 일문들이 발탁되어 학술과 정치계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이들은 유교적 통치 이념을 공고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경주계 문인들이 정계에 진출하게 된다. 게다가 성종의 제3비였던 延昌宮夫人도 경주최씨 崔行言의 딸이었다.<sup>37)</sup> 성종과 연창궁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현종의 제2비인 元和王后다.

신라가 망하면서 고려조에 투항했던 계림 출신의 경주최씨계는 성종대와 현종대에 걸쳐 왕가와 연결되고 중앙의 중요한 요직에 포진하면서 학술과 정치적 위상을 높이게 된다. 성종의 치세에서 최승로에 의해 다져진 유교적 학술과 통치체계는 불교를 신앙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질서의식과 윤리규범의 필요성에 대해 환기하게 만들었다. 정치적으로 볼 때, 현종대는 신라계의 화려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왕실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였다.

현종은 후에 왕손인 왕욱과 경종의 계비였던 헌정왕후 황보씨 사이에서 사통에 의해 태어나 성종의 보호 하에 양육되었다. 그리고 목종을 폐위시킨 康兆의 政變(1009년)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현종의 생부였던 왕욱이 태조 왕건의 제5왕후였던 신라계 신성왕후 김씨의 아들이었다. 현종은 왕씨의 후손이나 그 혈연적 관계에는 외가인 신라계와 깊이 연결되었던 셈이다.

정변에 의해서 왕위에 추대되었다는 점에서 현종은 확실한 지지세력이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현종에게는 당시 중앙에서 활약했던 신라계 출신 가문의 응원이 더더욱 절실하였다. 기존에 형성되었던 권력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가치규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유교의 학술사상과 윤리적 규범질서에 대해 재고하게 만들었다.<sup>38)</sup>

37) 『高麗史』 卷88, 「后妃列傳」1 延昌宮夫人崔氏.

38) ‘강조의 변’을 구실로 거란의 침입을 받아 나주까지 피난가야 했던 현종은 유교적 통치질서의 확립을 통해 국왕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이와 연관된 조치 가운데 하나가 성종과 현종대에 유교적 제례의식에 입각한 太廟의 설치였고, 여기에 배향할 인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공신을 선발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보광, 「고려 성종·현종대 태조배향공신의 선정



불교와 다른 학술사상과 윤리적 典範에 대한 요청은 신라계 학자들을 고려 사회에 소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현종은 崔沆, 蔡忠順, 劉璠, 崔士威 등을 등용하여 유교적 가치질서를 옹호하기 위한 일종의 학술권력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이 추대한 인물이 최치원이었다.<sup>39)</sup> 경주최씨 일문은 당시 구축되었던 정계와 학계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최치원을 공자의 묘당에 배향하는 초유의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유교를 숭상하는 세력들과 현종의 정치적 이익이 부합하면서 최치원의 문묘종사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최치원의 문묘배향에서 ③의 기록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이 과정이 사실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증과 추봉이라는 두 번의 과정을 겪은 것이다. 처음에는 내사령으로 추증된 후 문묘에 배향되었는데, 얼마 후 이것을 고쳐서 문창후로 시호를 변경하였다. 이것은 최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배향된 설총이 홍유후라는 시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내사령은 ‘내사성의 장관급’이라면 후는 ‘제후’의 지위라는 점에서 그 격이 다르다. 그래서 그 격을 맞추는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최치원의 시호가 설총의 문묘종사 직후에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할까? 추측하건데, 최치원의 문묘종사를 주도했던 일군의 그룹은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 매우 민감하였던 듯하다. 이들은 국가적인 학술·정치적 결정 과정에 매우 깊이 관여하였다. 배향된 당사자의 위상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가문이나 지지자들의 당대적인 위상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최치원이 당나라의 공거에 급제하여 관리를 지내고 『桂苑筆耕』을 비롯한 많은 저술이 있었다는 것이 문묘종사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렇지만 최치원의 문묘종사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에 대한 비판은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1514년(중종 9) 金絿는 夕講에서 고려사를 강하면서 최치원의 문묘종사에 대해, “최치원은 동방

---

과정과 의미], 『사학연구』 제113호, 한국사학회, 2014.

39) 김근호, 「고운 최치원 평가에 나타나는 통시대적 인식」, 『공자학』 39호, 공자학회, 2019

文獻의 우두머리이므로 묘정에 종사했지만, 그러나 道學을 정밀하게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한다. 문묘종사에 따른 자격을 논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면, 조선시대 도학자들의 관점에서 최치원은 문묘종사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다.

李瀾(1681-1763)의 경우에는 최치원이 지은 『鸞郎碑』를 거론 하면서 “三敎를 포용하여 중생을 교화한다 하였으니 그 식견의 비열함이 이와 같다. 하물며 노자와 부처까지 공자와 같이 높여, 이단으로써 유교를 해치는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우리 유교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와 같이 숭봉하였는가?”<sup>40)</sup> 라고 지적하였다. 한마디로 최치원은 조선시대의 ‘道學’과 ‘道統’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적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불교나 도가와 같은 이단배척 의식이 강렬했던 도학의 측면에서 최치원은 여전히 문제가 많았다.<sup>41)</sup>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자기 당색의 문묘종사를 청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효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율곡학과와 우계학과에서는 성혼과 이이 양현에 대한 문묘종사를 시도하면서 최치원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sup>42)</sup> 이러한 분위기는 최치원에 대한 문묘종사 논란을 완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이르면서, 가문의 선조를 선양하는 사업은 족보의 제작·보급과 맞물려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된다. 향촌의 명문 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이 과정에서 선조를 현창하기 위한 사우와 영당의 건립이 추진된다. 지산재의 경우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 건립된다.

40) 李瀾, 『星湖僊說』卷18, 「經史文」, <崔文昌>.

41) 이광우, 「최치원 평가를 둘러싼 조선시기 유학자의 몇 가지 고민」, 『한국학논집』 73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

42) 『孝宗實錄』卷2, 卽位年 11月 戊寅.

## V. 가문의 지속적인 영광의 잔상, 지산사

특정 가문과 씨족에서 아무리 많은 문무과 과거급제자나 사마시 합격자를 배출했어도 문묘에 배향된 인물과 그러한 인물을 배출한 가문은, 그 격이 달랐다. 경주최씨 문중은 ‘경주최씨 시조 최치원의 문묘종사’라는 가늠할 수 없는 큰 명예와 사회문화적 위상을 갖고 있었다. 최치원의 후예로써 그러한 명예와 위상을 지속하고 전승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책임이었다.

이와 같이 ‘문묘종사자의 후예’인 경주최씨 가문의 사회적 책무는 곧 사회적 권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묘종사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경주최씨 문중에서는 ‘시조 최치원’에 대한 추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것은 경주최씨 일족의 구성원으로서 분파를 넘어서 혈연의식을 재확인하고 집단적 권위를 구축하는 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러한 일련의 사업은 조선 중기 이후에 확산되는 서원이나 사우, 영당의 건립 운동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 조선시대 유학이 실천적인 도학적 학풍으로 전환되는 16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서원의 건립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그 이전에 문중 차원에서는 재실이나 영당을 건립하여 특별한 업적을 남긴 선조들을 배향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성주를 근간으로 하는 星州李氏의 경우, 安峯寺라고 하는 影堂寺刹을 가지고 있었다.<sup>43)</sup> 승려가 거주하는 사찰이었지만, 거기에 부속된 영당을 만들어서 문중의 조상들을 享祀하였다. 영당은 바로 문중 조상들을 제사하는 공간이자 그 일원들이 회합하는 교류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성주이씨 문중은 서원을 건립하여 그 안에 祠宇를 만들고, 祠堂에 조상의 영정과 신주를 모시려고 하였다. 이 사업이 ‘迎鳳書院’ 건립이었다.<sup>44)</sup> 경주의 서악서원이나 태인의 무성서원도 사우나 사당의 형태에

43) 박정미, 「16세기 星州 李氏 影堂寺刹 安峯寺의 규모와 운영 -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제31권,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3.

44) 李文樞, 『默齋日記』; 김소은, 「16세기 성주지역 사족의 교유와 서원 건립계획-목계

서 서원이라는 교육과 제향의 공간이 마련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구축된 사례이다.<sup>45)</sup>

이처럼 지역 유림들의 발의나 향촌에서 경주최씨의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최치원을 향사는 서원이나 사우, 영당이 건립되었다. 지역의 선현을 현창하기 위한 서원의 건립 운동은 17-18세기를 지나면서 종법적 질서를 중시하는 주자가례의 보급과 함께 문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에 이른다. 특히 재산의 상속이 長子를 위주로 분배되고 제사를 받드는 奉祀의 주체도 친족계통의 적장자와 종가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同族의 집성촌이 이루어졌다. 이때 문중의 소유의 서원이나 사우, 영당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광주 광산의 대촌마을에 최치원의 영정을 모신 芝山影堂이 건립되는 것도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의 연장선에서 살필 수 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지산영당은 영조13년(1737년)에 창건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 최치원의 영정을 모시다가 1846년(헌종12)에는 芝山祠를 세워 공간을 확장하게 된다.

1840년대에 지산영당이 지산사로 바뀐 것은 문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산영당은 광주 대촌 인근 지역의 경주최씨 시조인 최치원을 모시는 제사 공간이었다. 이곳이 지산사로 전환되면서 강학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은 향사뿐만 아니라 교육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경주최씨 일족만의 문턱과 담장을 넘어 타성들이 공존하는 지역 공동체로 열리게 된 지산사의 규모는 1899년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진 『光州

---

일기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6권 제2호(통권9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45) 안다미는 조선의 “서원제도”를 “향촌사회에 성리학적 이데올로기 보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국가제도”였다고 주장한다. 조선정부는 서원제도를 통해 “지방 양반”들을 “선별”하고 선별된 지방 양반들은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향촌사회에서 서원의 운영권을 “위임” 받는 “국법”에 규정되지 않는 국가 시스템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안다미, 「16-17세기 서원제도 보급 과정」, 『대동문화연구』 제109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0.

邑誌』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읍지』에는 “광주읍성에서 남쪽으로 이십 리 거리에 위치한 지산사에는 문창후 최치원과 고암 최운한, 영사정 최형한, 약포 정오도를 향사하였다. 원생의 대표격인 掌議 두 명과 원생들의 자치회의 임원인 色掌 두 명, 원생 10여 인을 두었다.”<sup>46)</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서원과 사우는 향사와 교육 공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론이 결집되는 곳이어서 관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로부터 운영 자금을 위한 位土를 받고 일정한 세금 혜택이 주어졌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18세기를 지나 19세기에는 지역에 서원, 사우들이 남설되는 지경에 이른다.

1868년에 대원군에 의해 단행된 서원사우철폐령은 이 같은 남설로 인한 국가적 경비를 줄이는 한편, 사류들의 정치적 결집을 통한 저항의 기운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도 포함하였다. 서원사우 철폐령으로 인해 지산사는 훼손되고 신위는 땅에 묻힌다.

이 시기에 경주최씨 和淑公派 일문의 후예였던 勉庵 崔益鉉(1834-1907)은 대원군의 시책에 맞서 서원철폐 운동에 저항하였다. 그는 광주의 지산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경기도 포천에 거주했던 최익현은 시조인 최치원을 모시는 영당을 철폐한 지역 수령에게 강력한 항의 편지를 보냈었다.<sup>47)</sup> 그것이 1868년(고종5, 무진년) 때의 일이다.

서른여섯의 최익현은 永平 수령 李濟元이 萬世橋 인근에 있던 문창후 최치원을 모신 영당을 훼손하자 “고운 선생의 맑은 풍도와 높은 절개는 백세의 이후에도 모든 인의의 성품을 갖춘 사람이면 누군들 흠양하고 숭상하여 논의하는데 … 슬프다. 남의 사당을 헐어버리면 남도 그 사람의 사당을 헐어 버리고, 남의 할아버지를 욕하면 남도 그 할아버지를 욕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어진 군자로서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sup>48)</sup>라

46) 『光州邑誌』(1899). “在州西南二十里。祀文昌侯崔致遠。菴庵崔雲漢。永思亭崔亨漢。藥圃鄭吾道。掌議二人。色掌二人。院生十人。”

47) 崔益鉉, 『勉庵集』, 「與李永平濟元」(戊辰十一月).

48) 崔益鉉, 『勉庵集』附錄 1卷, 「年譜」(戊辰年, 1868, 36세).

는 내용을 적어 보냈다.

영평 태수 이제원은 서원을 훼손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영당에까지 확대 적용하였고, 그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최익현은 항의했던 것이다. 선조인 최치원에 대해 남다른 존숭의 태도를 취했던 최익현은 문창후와 관련된 호남의 두 장소를 방문했었다.

최익현은 정읍의 무성서원과 광주 대촌의 지산사를 찾아 최치원에게 예를 올렸다. 첫 번째는 그가 제주로 유배되었다가 해배되던 1875년(고종 12, 을해) 4월이다. 그는 태인을 지나면서 무성서원에 들렀다.<sup>49)</sup> 두 번째는 광주 지산사를 1879년(고종 16, 기묘)에 찾았다. 최익현은 1876년 1월에 흑산도로 유배가 결정되어 2월에 입도하였고, 1879년 2월에 해배되었다. 귀양에서 풀려난 뒤 상경 길에 훼손된 광주 대촌의 지산을 찾았다.<sup>50)</sup> 세 번째는 1906년 윤4월 13일, 일흔 넷의 최익현이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거병한다는 상소를 올리면서였다.<sup>51)</sup>

1879년에 광주를 찾았던 최익현은 훼손되어 없어진 지산사에 대한 글을 남겼다. 그것이 「지산사유허비」다.<sup>52)</sup> 이 글에서 최익현은 지산사가 영사정 최형한의 묘소와 관련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그를 추모하는 사당이 대촌에 건립되었던 연원을 기술하였다.

최형한이 옥과현감으로 재직할 후 그가 죽자 그곳에 사우가 건립되었고, 후에 옥과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후를 추배하면서 위차의 선후 문제가 발생하여 대촌으로 옮겨 사우를 건립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사우에는 최치원뿐만 아니라 영사정의 형인 최운한, 정오도를 함께 향사했으며, 그렇게 행한 것이 백여 년이 지났는데,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워 유허비를 남겼다. 영사정과 관련하여 옥과의 죽림에 세워진 사우는 후에 ‘詠歸書院’으로 확장되었다. 노사 기정진도 영귀서원

49) 崔益鉉, 『勉庵集』附錄 第1卷, 「年譜」. “過泰仁. 祇拜武城書院.”

50) 崔益鉉, 『勉庵集』附錄 第1卷, 「年譜」. “己卯. 先生四十七歲. … 過光州. 祇拜文昌侯影幀于芝山.”

51) 崔益鉉, 『勉庵集』附錄 第4卷, 「年譜」. “閏四月 丁卯 己卯. 次于泰仁. 謁武城書院. 率諸生講會. 仍上疏舉義.”

52) 崔益鉉, 『勉庵集』卷25, 「芝山祠遺墟碑」.

의 位次圖를 보면서 위치문제와 관련된 영사정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sup>53)</sup>

이와 같은 최익현의 지산사와 관련한 글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애초에 지산영당이라고 알려졌던 공간은 영사정 최형한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진 장소였다. 실제로 현재 지산재 인근에는 최형한의 묘소가 있고, 그의 ‘영사정 신도비’와 ‘墓碣追識’도 광주시 남구 지산재길 51에 소재하고 있다.

그런데 1840년대에 지산영당에서 지산사로 전환되었던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즈음에 지역사회에서 최치원과 관련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최치원의 출생과 묘소에 대한 논의이다. 지역에서는 1830년대를 지나면서 영남의 ‘경주인 최치원’이 호남의 ‘옥구 출신 최치원’으로 바뀐다. 호남 출신 최치원에 대한 인식을 공식화하는 저술이 徐有渠(1764-1845)의 『桂苑筆耕集』 서문이다.

서유구는 1833년(순조 33, 계사) 가을에 호남을 안찰하며 순시하던 중 태인현에 들러 최치원을 배향하고 있는 武城書院을 방문했다. 이 시기에 洪奭周(1774-1842)는 『계원필경집』을 이서구에게 보냈다. 그는 서유구에게 천여 년을 이어온 이 책을 간행하여 유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서유구는 흔쾌히 수락하고 책을 교정하여 1834년(순조34, 갑오) 9월에 『교인계원필경집』을 간행했다. 그리고 인쇄한 책은 泰仁縣의 무성서원과 함천군의 伽倻寺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가야사는 해인사를 말한다. 무성서원과 가야사(해인사)는 최치원의 행력에서 중요한 장소성을 지닌 곳이다.

서유구는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 엮은 20권 분량의 『계원필경집』을 재간행하면서 「교인계원필경집서」에 이렇게 썼다.

---

53) 奇正鎭, 『蘆沙集』 卷6, 「與趙光州 徹永」.

공의 이름은 致遠이요, 字는 海夫요, 고운은 그의 號다. 湖南 沃溝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뛰어나게 총명하였다. […] 나이 12세에 商船을 타고 중국에 들어갔다. […] 眞聖王 때에 가족을 이끌고 江陽郡 伽倻山으로 들어가 생을 마쳤는데, 그의 묘소는 湖西의 鴻山에 있다. 어떤 이는 공이 신선이 되었다고도 하나, 이는 허망한 말이다.<sup>54)</sup>

서유구는 『삼국사기』 「최치원전」에서 최치원이 “왕경(경주)” 출신이라 했던 것을 지우고 호남의 “옥구” 출신으로 적는다. 이것에 덧붙여 기존에 소재를 알 수 없었던 최치원 무덤을 호서의 “홍산”으로 특정한다. 최치원의 출생과 죽음을 영남이 아닌 호남과 호서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sup>55)</sup>

서유구가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정보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수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내용은 이능화의 『조선무속고』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유포된다. ‘전라북도 옥구군 자천대’와 ‘고군산군도’의 최치원 유적지와 함께 자세하게 각색되어 『조선무속고』에 실린다.<sup>56)</sup>

호남의 옥구 지역에 최치원과 관련된 이러한 기록은 서유구의 「교인계원필경집서」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sup>57)</sup> 그런데 기록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기 보다는 ‘설화’라고 하는 서사의 방식으로 생산되고 민간에 유통된 내용들이다. 이러한 설화적 장소성은 실제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승되어 마치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장소로 고정된다. 이것이 실제적인 물리적 공간에 서사가 결부됨으로써 새로운 장소성

54) 『桂苑筆耕集』, 「校印桂苑筆耕集序」(徐有榘). “公名致遠。字海夫。孤雲其號也。湖南之沃溝人。幼穎慧絕倫。… 年十二。從商舶入中原。十八。… 眞聖時。挈家入江陽郡伽倻山以終焉。葬在湖西之鴻山。或謂公羽化者安也。”

55) 기록된 내용이 실제 사실을 담보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따른 ‘기록’과 설화적 상상에 의한 ‘서사’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설화적 상상력에 의한 ‘서사의 재구성’은 당대인들(지역민)의 요청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유구가 주장한 최치원의 “옥구 출생설”과 “홍산 무덤설”은 사실에 근거한 논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56) 이능화, 이재곤 옮김, 『조선무속고』, 동문선, 1995

57) 김복순, 「서유구의 『교인계원필경집서』와 최치원 연구」, 『한국사학보』 63호, 고려사학회, 2016.



이 구성되고 발견되는 과정이다. 이것은 곧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낯선 ‘이지역성’이 생성되고 유통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 VI. 결론을 대신하여

1868년에 훼손되었던 지산사는 일제 강점기인 1922년에 다시 세워졌다. 1922년 재건되면서 최치원만 배향하게 된다.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에 의해 강점되었던 1920년대에 문중의 사우로 재건된 것이다. 이 시기에 씨족의 문중에서는 경쟁적으로 서원과 사우를 재건립했고,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문집을 간행하면서 족보를 제작했다.<sup>58)</sup> 문중의 종가를 중심으로 시조들의 묘소가 단장되는 일종의 묘지 성역화 사업도 유행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家와 國이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유교적 이념을 심화시켰던 조선사회는 해체되었고, 그 정점을 이뤘던 국왕이 사라진 시대가 일제 강점기였다. 조선을 대표했던 국왕 대신에 조선총독이 통치를 대리한 시대였다.<sup>59)</sup> 그런 시대에 가의 결속을 다졌던 문중이 새삼 활성화되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과 100여 년 전에 진행되었던 이러한 일들은 성찰적 계기성을 제공한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유교의 시대도 아니다. 그렇다고 전통으로서 유교가 완전히 해체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개별적이거나 고립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여기-이곳은 경계 너머 장소와 지역에 사는 로컬의 사람들이 긴밀하게 연동하면서 구성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다. 사람과 사람, 로컬과 로컬이 촘촘하게 연결되는 초연결의 트랜스로컬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

58) 정진석, 「일제 강점기의 출판환경과 법적 규제」, 『근대서지』 6호, 근대서지학회, 2012.

59) 김경호, 「탈식민과 한국유교」, 『유교사상문화연구』 62호, 한국유교학회, 2015.

이러한 시대에 광주 지산재와 같은 지역의 많은 문중 공간은 더 이상 고립적으로 남겨진 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문중뿐만 아니라 지역의 힘과 역량이 결집되어 새롭게 변형되고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문중에 소속된 일족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장소이자 지역민들의 힘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지산재의 공간의 활용에 대해 문중의 의지가 수렴되고 그에 따른 지역자치 단체의 지원을 유도한다면, 우리는 지산재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지산재가 광주 지역의 경주최씨 일문과 연결되는 문중 소유라는 특수성을 탈각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곳에서 우리는 최치원을 통해 인문학적 삶과 인간다움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최치원의 전통’을 영호남의 사상문화를 연결하는 노릇으로 삼아서 교류와 협력의 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최치원 그 자체’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운이라는 인물이 인생의 영광을 찾아 떠났던 그 먼 길들을 상상한다면, 그래서 그가 성취했던 것들이 결국 그 자신을 성찰하고 삶을 풍부하게 했던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먼저 알고 만나야 한다. 우리는 ‘최치원이란 상품’을 만들기 전에, 자본의 획득을 논의하기 전에, 외롭고 쓸쓸했던 구름처럼 떠돌았던 고운 최치원의 학술사상과 감성에 대해 먼저 감응해야 한다.

※ 이 논문은 2021년 5월 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신채호, 『丹齋申采浩全集』, 형설출판사, 1979.
- 최영성, 『최치원의 철학사상』, 아세아문화사, 2002.
- 권시용, 「16-17세기 초반 퇴계문인의 서원 건립 활동」, 『한국서원학보』 제8호, 한국서원학회, 2019.
- 김경호, 「탈식민과 한국유교」, 『유교사상문화연구』 62호, 한국유교학회, 2015.
- 김문택,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 나주 경현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11권, 한국국학진흥원, 2007.
- 김보광, 「고려 성종-현종대 태조배향공신의 선정 과정과 의미」, 『사학연구』 제113호, 한국사학회, 2014.
- 김근호, 「고운 최치원 평가에 나타나는 통시대적 인식」, 『공자학』 39호, 공자학회, 2019.
- 김복순, 「서유구의 『교인계원필경집서』와 최치원 연구」, 『한국사학보』 63호, 고려사학회, 2016.
- 김복순, 「최치원과 최승로」, 『경주사학』 제11집, 경주사학회, 1992.
- 김성환, 「최치원 ‘國有玄妙之道’설의 재해석 - ‘한국 고대 신선사상의 지속과 변용’의 시각에서」, 『도교문화연구』 34호, 한국도교문화학회, 2011.
- 김소은, 「16세기 성주지역 사족의 교유와 서원 건립계획-목계일기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6권 제2호(통권9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 김향수, 「신라 유학과 설총의 학문」, 『새국어생활』 제11권 제3호, 국립국어원, 2001.
- 박정미, 「16세기 성주 이씨 영당사찰 안봉사의 규모와 운영 -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제31권,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3.
- 백창력, 「조선후기 양반지배네트워크의 성격과 구조변동-상충양반의 친족연결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 안다미, 「16-17세기 서원제도 보급 과정」, 『대동문화연구』 제109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0.
- 이광우, 「최치원 평가를 둘러싼 조선시기 유학자의 몇 가지 고민」, 『한국학논집』 73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

이능화, 이재곤 옮김, 『조선무속고』, 동문선, 1995

이수건, 「구암 지정의 가계와 생애 및 ‘退南’과의 관계」, 『안동사학』 제9-10집, 안동사학회, 2005.

임선빈, 「17세기 무성서원의 건립과 운영-제향인물과 사액과정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35집, 한국국학진흥원, 2018.

장일규, 「최치원 관련 유적의 분포와 승모」 『한국사학보』 63호, 고려사학회, 2016.

정진석, 「일제 강점기의 출판환경과 법적 규제」, 『근대서지』 6호, 근대서지학회, 2012.

<http://www.choichiwon.net/>

Abstract

**The succession of 'Choi Chi-won' and  
the establishment of Jisanjae in Gwangju**

- Focusing on Exploration of the encounter and reconstruction of  
different localities

Kim, Kyung-ho

This article examines how Chiwon Choi from Yeongnam was called in the Honam region and was used to construct the regional peculiarity of Honam in connection with the construction process of Jisanjae in Gwangju. In particular, in this article, I paid attention to how the ‘Choi Chi-won tradition’ was formed, and in what way it was reproduced and reached ‘now-here’, and what the implications of such an overall proces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is not an empirical study to clarify what “locality of Honam” is, but rather has a poetic character of exploring the social output process of the specificities that constitute locality.

The reality of the ‘Choi Chi-won tradition’ arouses our curiosity in at least two points. The first is how the 'Choi Chi-won tradition' was created, and the second is what kind of regional peculiarity was formed by appropriating such a tradition to a specific region and local people. I saw this aspect as a process in which singularities with different identities meet and reconstitute, and I looked at it from the viewpoint of 'Different localities.' - the encounter and reconstruction of different

localities. Although a tradition centered on Choi Chi-won is structured in a single way at the governing level, at the same time, the aspect of being created, transmitted and reconstructed by local people in the region also coexists.

The process of accepting and reenacting the “Choi Chi-won tradition” through Jisanjae eventually overlaps with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multi-pronged locality of Honam. In a way, it is not known that he meets Chi-won Choi, who has permeated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of Gwangju. This article has a poetic character of an exploration of the social output process of the singularities constituting the locality, rather than an empirical study to explain what “locality of Honam” is.

**keywords :**

Gwoon Choi Chi-won, Gyeongju Choissi, Jisanjae, Choi Young-han, Gwangju, the encounter and reconstruction of different localities, Munmyo Shrine